

2) 설교하는 당신은 경험했나, 하고 묻고 싶으신가요? 저의 대답은 설교가 진행되면 간접적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런 경험을 종교학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루돌프 오토가 『Das Heilige』라는 책에서 가장 궁극적인 종교 경험을 ‘누미노제’(Numinose)라고 이름을 붙인 뒤로 이 용어는 신학과 종교학과 철학에서 두루 쓰입니다. 절대자 앞에서 피조물이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설라이에르마허 용어로 바꾸면 ‘절대 의존 감정’이고 바르트 용어로 바꾸면 ‘절대타자’ 경험입니다. 이를 일상적인 말로 바꾸면 세상을 낯설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낯설고 너무 놀라워서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울린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늘은 겨울나무이기도 하고 서리이기도 하고 낫달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상의 매 순간이 흥미진진하겠지요. 걷기도 재미있고, 설거지도 재미있겠지요. 이와 비슷한 느낌을 오래전에 즐겨『세상은 마술이다』에 담았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일상이 단조로워집니다. 그런 단조로움을 견디지 못하기에 돈에 더 매달리겠지요. 더 심각하게는 알코올과 마약과 도박에 의존하겠지요. 정치도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고, 소비도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땅에 묻힌 보물을 모르니까 잡동사니에 한눈을 파는 겁니다.

3) 하나님 경험이 그렇게 전문적인 공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이나, 하고 질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또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것처럼 생각될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이야기를 그런 수준에만 읽으면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경험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詩)처럼 절대적인 경험의 한순간을 메타포와 상징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구도 정진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 등등, 모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역시 그렇습니다.

4) 소리의 세계에 귀명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명창처럼 소리를 하지는 못하나 귀로는 소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명창이 될 수는 없어도 귀명창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귀명창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귀명창도 실제 명창과 똑같이 득음이라는 소리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2024년 한해 우리 모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 경험이 더 깊어지고 명료해지며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4년 1월21일  
주현절 후 셋째 주일  
세계 교회력 「나」해 8주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대구 성서아카데미 회원이 1월1일 태백산 산행에 나섰다가 사진으로 담은 상고대 풍경이다. 하늘과 나무와 서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졌다. 저런 풍경을 만들어내려면 우주의 힘과 천사의 손길이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신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비경이다. 우리 주변의 사물에 실제로 눈을 돌리기만 하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절경을 얼마든지 감상할 수 있다. 머지않아 시골집 마당과 들판과 논둑과 길가에 민들레가 꽃을 피우리라. 그날이 어서 오기를 ...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친교 5시-5시20분/예배 후 모임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o/churchs>

#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 개 회 예 전

### 예배의 부름 ... 목사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영과 생명의 세계를 드러내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 \*찬송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지금 여기 모였습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이며,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홀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삶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고단한 세상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어'(고후 4:6) /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며, 지금과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영광찬송 「국악찬송」 4장 (영광 누리소서, 이은영 곡) ... 다 함께



## [ 알 리 는 말 씀 ]

- \* 예배 후에 오늘의 설교관련 주제로 찬양, 생각 나누기,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 \* 2월 첫 주일(4일)에는 예배 후에 정목사님과 모든 교우가 함께 식사할 예정입니다.

### \* 지난주일(1월 14일) 헌금: 300,000원

- 주일헌금 170,000원 통장헌금 130,000원

. 교회 온라인 통장: 국민은행 659002-04-033967 양혜선

### \* 2024년 1, 2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
1월28일	김동호 목사	최선아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집사	양혜선, 윤혜정 <시청각실>
2월4일	정용섭 목사	윤혜정 집사/ 윤동희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집사	양혜선, 이기령 <시청각실>
2월11일	설 연휴			
2월18일	박재진 목사	윤혜정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집사	양혜선, 김희란 <시청각실>
2월25일	김동호 목사	이기령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집사	양혜선, 윤혜정 <시청각실>

## 지난주일(1월14일) 설교 발췌

제목: 사무엘의 하나님 경험 (삼상 3:1~10)

1) '사무엘아, 사무엘아!'라는 여호와의 부르심은 어떤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경험에 대한 문학적 메타포(은유)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경험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셨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런 부르심을 경험했고, 마틴 루터와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셨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절대적인 것에 대한 경험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런 경험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무엘 같은 사람에게만 그런 경험이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요? 왜 생명 충만감이 없을까요? 왜 바다를 처음 본 어린아이처럼 세상과 사물을 신비롭게 경험하지 못할까요?

##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130장 (찬란한 주의 영광은) 1, 2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찬송(주기도) ... 다 함께 (\* 악보 별지 참조)

알림 ... 목사

## 파 송 예 전

\*마침 찬송 130장 (찬란한 주의 영광은) 3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주현절 후 셋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일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름과 버림과 따름'의 영적 깊이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죄의 고백 ... 다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으나/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공연한 걱정과 근심에 싸일 때도 많았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인색하고 교만했습니다.

\*자비의 기도 ... 다 함께

목사: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시 45:9) 자비를 구합니다.

회중: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래의 찬송가를 부른다.)

간절하게 이강민

주 - 여 자 비 를 베 풀 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 비 를  
베 풀 어 주소서 주 - - - 여 자 - 비 - 를 베 풀 어 주소서

\*사죄 선포

목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거룩 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상투스) ... 다 함께

거룩하 - 시 다 거룩하 - 시 다 거룩하 시 도 - 다  
만군의주 하 - 나 님 하늘과 땅 - 에 가 - 득한그영광  
높은데에호 - 산 - - - 나 주의이름으로오시는이 - 여  
찬양받으소서 높은데에호 - 산 - - - 나

\*평화 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Someone Is Praying For You

Lanny Wolfe

1. 마음 이 지쳐 서 - 기도 할 수 없 고 눈물 이 빗물 처럼 - 흘 러 내릴 때 주님  
2. 우리 의 마음 이 - 지쳐 있 을 때 에 갈보 리 십자 가를 - 기 억 합 니 다 주님

은 우리 연 약 함 을 아 시 고 사 랑 으 로 인 도 하 시 네 -  
은 우리 의 로 움 을 아 시 고 내마 음 에 기 뻔 주 시 네 -

누 군 - 가 널 -위 하 여 - 누 군 - 가 기 - 도 하 네 - 네가 홀  
로 외로워 서 - 마음 이 무너 질 때 누 군 가 널 위 - 해 기 도 하 네 -

사전 1:2

말씀 예전

설교 전 기도 ... 다 함께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귀를 열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막아주시고/ 진리의 영을 우리 영혼에 가득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말씀 요나 3:1~5, 10 ... 이유선 집사

성서교독 시편 62:5~12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내영혼이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림은 나의 모든 바라는 것 그로부터 나옴일세  
-하나님은 나의 반석 구원이요 요새시니 어떤 일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라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달려있네 하나님은 굳은 바위 안전하신 피난처라  
-백성들이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라 하나님은 피난처니 그분만을 의지하라  
사람이란 허망하고 인생이란 일장춘몽 저울위에 올려보면 입김보다 가벼우니  
-힘써 본들 무엇하며 빼앗은들 무엇하리 온갖 재물 쌓여가도 마음 둘 수 없으리라  
주님 주신 한 말씀에 두가지를 깨달았네 권세 능력 오직 주님 하나님의 것이기에  
-변치 않는 자비 사랑 오직 주님 것이기에 사람들이 행한 대로 주님 갚아 주시리라

둘째 말씀 고린도전서 7:25~31 ... 이유선 집사

\*셋째 말씀 마가복음 1:14~20 ... 이유선 집사

\*응답 찬송 644장 (아멘) ... 다 함께

아 멘 아 멘 아 멘 아 멘 아 멘송

설교 부름-버림-따름 ... 박재진 목사

설교 후 기도 ... 설교자

찬송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 다 함께